

이런 직원이 좋다, 송현종

제 직장생활 올해로 19년차입니다. 입사전 나름대로 인력Pool 훌륭하다는 한국은행과 컨설팅회사를 다녔습니다만, 제가 만난 인간들중 가장 일 잘하는 인간들은 SKT에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 제가 많이 좋아 합니다.(본인들은 모를 겁니다.)

오늘은 이 '인간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이 인간들처럼 일을 한다면 모두가 서로에게 일하고 싶은 동료/부하/상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인간들,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합니다. 넓게 본다 함은 광범한 Fact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규제, 경쟁자, 내부역량 등등 필요한 사실 모두를 꼼꼼히 살펴 보는 것이지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Fact를 광범하게 구하는 것은 일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은 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광범하게 널린 Fact와 정보를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종합 해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황의 종합 분석이 끝나면 의사결정을 위해 전사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우리 팀, 우리 본부의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실 후자의 유혹은 만만치 않게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Local Optimization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사안 자체의 추진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추진하는 구성원도 결국 상처를 입게 됩니다.

셋째, 입장을 정합니다. 입장을 정한다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지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매니저로서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정해 발설한 후의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상상되겠죠. 차라리 정하지 않는 게 맘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갈 사람이라면 일찍부터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야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정확한 Fact와 Logic이 있으면 이에 근거한 방향성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상사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건 Fact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것이며 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입니다. 전 여전히 우리 조직이 '다르다'는 것에 불이익을 주는 조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넷째, Communication을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란 말 어렵지요.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안 A, 대안 B가 있습니다. 저는 대안 B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 둘째, ... 셋째, ... 이기 때문입니다.'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임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 이런 Communication을 선호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상당한 설득이 필요한 이슈는 정반대 즉 Fact, 대안들, 그리고 Recommendation 순의 Communication이 더 좋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상사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을 절약해 주는 구성원을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의 네 가지를 Master하면 그런 구성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의외로 쉽지 않고 많은 연습과 어지간한 심호흡이 필요한 일입니다.